



기업 ‘사실상 분교표기’… 취업생 ‘답답’

(취업준비생)

입사지원서 ‘캠퍼스 분리표기’ 논란

정혜빈 기자 hb0204@khu.ac.kr

학교측의 홍보 부족으로 주요 기업이 국제캠퍼스(국제캠)와 서울캠퍼스(서울캠)를 입사지원서 상에서 분리하고 사실상 ‘분교표기’를 명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취업준비생이 선호하는 우리나라 4개 그룹(삼성, SK, LG, 현대자동차)의 입사지원서 작성 시 4곳 중 2곳이 학교명 입력란에 양 캠퍼스를 구분해 사실상 ‘분교표기’를 하고 있다. 특히 SK와 현대자동차 그룹은 지원서 작성 시 학교명 입력란에 서울캠만을 ‘경희대학교’로 국제캠은 ‘경희대학교(국제캠퍼스)’로 입력하게 돼있다. 이들 그룹은 각각 수십여 개의 계열사를 갖고 있는 대기업이기에, 이는 일부 취업준비생만 느끼는 당혹스러움은 아니다.

이같은 ‘분리표기’는 현재의 불안정한 취업상황에서 취업준비생들의 우려를 더하고 있다. 우리학교는 지난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캠퍼스 통합 승인을 받아 2012년부터 서울캠과 국제캠 모두 법적으로 분교이다. 그러나 통합 이후 학교측의 미온적인 홍보로 국제캠 학생들은 ‘분교’의 이미지로 인한 불이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태이다.

반면 성균관대학교(성균관대)는 수원에 위치한 자연과학캠퍼스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공격적인 홍보를 해온 결과 우리학교와는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중 하나가 SK와 현대자동차그룹의 입사지원서에서 양 캠퍼스 모두 ‘성균관대학교’라고 입력하게 돼 있는 것이다.

현대자동차그룹 인턴에 지원했던 노민호(생체의공학 2011) 군은 “우리학교는 본·분교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지만, 입학해서 지금까지 지켜본 결과 말만 있을 뿐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지 않는 것 같다”며 “취업진로지원처가 이원화되어 있는 것도 문제라고 본다”고 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현대자동차그룹 인사팀 담당자는 “지원서 작성 시 학교명을 정확하게 표기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 좋겠지만 학교 수가 많다 보니 자체적 수정은 실질적으로는 어렵다”며 “학생들이나 학교 측의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는 이상 바꾸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우리학교를) 분리해서 표기해 둔 의도는 학과계열별로 구분하기 위함”이라고 말했지만 성균관대를 ‘단일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성균관대도 캠퍼스를 구분해 표기하고 있지 않나”며 “잘 모르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미지 개선 적극 홍보해 온 성균관대 우리학교와는 다른 모습 보여

담당자는 “학교 측에서 캠퍼스 홍보 리쿠르팅이나 취업박람회 등에서 계속해서 홍보를 해왔기 때문에 인사담당자들은 (서울·국제) 캠퍼스가 통합된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서 “학생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수많은 대학이 어렵게 평가받는 취업시장에서, 다양한 직무의 입사 평가자들이 우리학교만의 분리표기를 양해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

되는 상태다.

국제캠 취업진로지원처 측은 “학생들이 향의할 때 마다 해당 기업에 시정요청을 했었다”며 “다만 아무래도 취업진로지원처 공식 명칭상 중앙부처에서 조치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정책원 기획예산팀 이현아 계장은 “정확히 언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는지는 파악 중이나 캠퍼스 통합에 대해 이미 기업체에 홍보를 했다고 알고 있다”면서 “기업의 인사정책에 대해서 강요 할 수 없는 입장이라 기업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다”고 답했다.

“학교 측의 요구가 있으면 수정하겠다”는 기업 측의 답변과 “홍보를 했지만 기업 측에서 수정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는 학교 측의 답변이 엇갈리고 있다.

이 계장은 “기업에서 통합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분리표기’가 아마도 학생들의 우려처럼 취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미지에 있어 자칫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취업준비생 고충은 담당자의 짐작으로 떨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배동원(산업경영공학 2010) 군은 “취업을 준비하는 국제캠 학생이라면 ‘분리표기’돼 있는 상황으로 누구나 한 번쯤 언짢은 기분을 느꼈을 것”이라며 “현재 등록금을 내고 다니는 재학생의 입장을 학교가 다시 한 번 생각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대학본부의 적극적이지 못한 본·분교 인식개선으로 학생들의 고충은 해결이 요원한 상황이다.

‘프라임 사업 소통하라’ 양 캠퍼스 총학 성명서 한 목소리

총학, ‘논의 과정 소통’ 요구

이시은 기자 ditlids77@khu.ac.kr

황경선 기자 sunny96@khu.ac.kr

최근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PProgram for Industry needs Matched Education) 사업과 관련해 대학본부의 일방적 행보가 이어지자 양 캠퍼스 총학생회(총학)가 ‘논의과정의 소통’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캠퍼스(서울캠) 총학은 지난 20일, 국제캠퍼스(국제캠) 총학은 지난 23일 온·오프라인에 프라임 사업에 대한 성명서를 게재했다. 서울캠 총학은 성명서를 통해 ‘프라임 사업 참여 여부와 사업 계획 자료를 제공할 것’과 ‘프라임 사업에 있어 구성원 대표의 의견개진 기회를 줄 것’을, 국제캠 총학은 ‘이전에 있었던 프라임 사업에 관련된 회의록 공개’, ‘이후의 회의에 학교의 3주체(교수, 직원, 학생)가 참석’을 각각 요구했다. 양 캠퍼스 총학은 공통적으로 ‘논의 과정 중 학생 대표의 참여 보장’과 ‘논의 과정의 상세한 내용 공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대학본부에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국제캠 총학 김용석(화학공학 2009) 회장은 프라임 사업에 대해 “그간 본부에서 몇 차례 논의가 있었다는 소식을 접했지만 학생회는 아무런 정보도 들을 수 없었다”며 “학교에 엄청난 변화가 예상되는 사업이며, 사업 내용에 ‘구성원 합의’라는 항목이 있는데도 대학본부의 공식적인 답변을 들은 적 없다”고 밝혔다.

사업을 주관하는 국제캠 미래정책원 기획예산팀 정구승 팀장은 “아직 뚜렷하게 논의된 사항은 하나도 없다”며 “정원 감축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면 당연히 구성원들의 공식적인 합의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가장 큰 우려는 이대로 가다간 프라임 사업에 ‘대학본부’의 입장만이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논의과정에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우리학교의 ‘인문학 중시’ 방향과 이러한 사업 논의가 맞는 지도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프라임 사업이 ‘유사학과 조정’을 통한 국제캠 이미지 개선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일부의 의견에 대해 김 회장은 “어

쩌면 대학이 본질적으로 추구해야할 방향과 국제캠이 나아가야하는 방향이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며 “구성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신중히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캠 총학은 성명서의 수신처를 ‘부총장실’로 지정해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부총장실 측은 총학의 질의서에 대한 회신에서 단과대학 별로 ▲정원의 15%를 대학본부에 위탁 ▲학문단위 개편계획 제출의 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프라임 사업 기본 방향이라고 밝혔다.

즉 각 단과대학이 해당 대학 정원의 15%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한 정원조정을 대학본부에서 할 수 있도록 합의하거나, 단과대 차원에서 어떤 방식으로 개편할 것인지를 담은 계획서를 제출하라는 것이다. 서울캠 총학 강필준(자율전공학 2012) 부회장은 부총장실의 답변에 대해 “현재 대학본부의 프라임 사업 대응 방식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강 부회장은 “답변을 보고 ‘단과대에 모든 걸 일임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학문단위 개편을 위한 논의에만도 만만치 않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에서 당장 다음 주까지 단과대들이 계획을 원만히 완성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구성원 간 소통이 형식적인 절차로 끝날 것 같아 우려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12월 말에 대학별로 교육부에 최종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그는 “이제 한 달여 남은 기간 동안 대학본부가 각 단과대의 계획을 확인하고, 보완한 후 구성원과 소통의 자리를 갖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강 부회장의 또 다른 우려는 부총장실이 밝힌 프라임 사업 추진안 중 구성원 간 합의를 위해 마련한 ‘소통위원회’의 위원단이 대부분 학교 쪽 인물들로 구성돼있다는 것이다. 그는 “소통위원회의 구성 비율이 대학본부 쪽에 기울어있어 프라임 사업 준비에 학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프라임 사업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질의하기 위해 서울캠 총학은 지난 27일 1인 피켓시위를 통해 부총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오늘 오후 4시에 면담이 이뤄질 예정이며 해당 내용은 대학주보 온라인에 실릴 예정이다.

[서울] 2015학년도 동계계절학기 개설강좌 현황

대학	이수구분	강좌명	학점	교강사명	강의시간	강의실	언어구분	비고
경영대	전공기초	경영통계학	3	김영식	09:00~11:45	오212		
		경제학원론	3	박원규	13:00~15:45	오212		
		책임경영	3	손윤근	09:00~11:45	오211		
		회계원리	3	나형준	13:00~15:45	오211		
		생산운영관리	3	김용유	09:00~11:45	오210		
	전공필수	마케팅원론	3	이종영	13:00~15:45	오210		
		경영정보시스템	3	김현모	09:00~11:45	오209		
		조직행동론	3	김영현	13:00~15:45	오209		
		관리회계1	3	안지현	09:00~11:45	오202		
		재무관리	3	김현영	13:00~15:45	오202		
문과대	전공필수	서양문화강독	3	박진빈	09:00~11:45	문308	부분영어	
	전공선택	서양근대문학	3	서광열	09:00~11:45	문310		
		시사반역	3	조재범	09:00~11:45	문309		
		영한순차통역1	3	이현경	13:00~15:45	한506		
		영미문화원강	3	이주원	13:00~15:45	문309		
		영어음성학	3	정환주	13:00~15:45	문308		
		영문학과장기념기	3	민승기	09:00~11:45	한506		
생활대	전공기초	인간과생활환경	3	채혜원	13:00~15:45	생507		
		현대사회와소비자	3	배준영	09:00~11:45	생507		
전공선택	이산수학	3	박정훈	13:00~15:45	이서505		필타칭(기간: 12/22~1/4)	
							필타칭(기간: 1/5~1/14)	
이과대	전공필수	미분방정식 개론	3	최나리	09:00~11:45	문402		기간강의기간: 12/22~1/4 기간강의기간: 1/5~1/14
	전공기초	미적분학1연습1	3	연미정	13:00~17:50	이서502		
		미적분학1연습2	3	박창훈	08:00~12:50	이서505		
		물리학1실험2	3	여승준	10:00~12:45	문403		필타칭(이론)
		물리학1실험2	3	강승훈	14:00~15:50	문301		필타칭(실험)
정경대	전공기초	경제수학	3	유중순	13:00~15:45	추후공지		
		경제통계학	3	유중순	09:00~11:45	추후공지		
		경제학원론2	3	김정숙	09:00~11:45	추후공지	부분영어	
		정치학방법론	3	구본상	13:00~15:45	추후공지		
	전공선택	호텔고객만족경영론	3	최인목	13:00~15:45	호402	영어강의	
호관대		호텔연구방법론	3	한주형	09:00~11:45	호401	영어강의	

이수대	전공선택	동양미술사	3	배한진	13:00~15:45	미208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양-중학교과	우리가사는세계	3	조희원	09:00~11:45	창203	2015학번 수강불가	
	교양-중학교과	우리가사는세계	3	서광열	13:00~15:45	창203	2015학번 수강불가	
	교양-중학교과	인간의가치탐색	3	양윤희	13:00~15:45	창501	2015학번 수강불가	
	교양-기초교과	글쓰기1	2	이호선	09:00~11:45	창710		
		글쓰기1	2	권기성	09:00~11:45	창204		
		글쓰기1	2	방인식	13:00~15:45	창710		
		글쓰기2	2	최종환	09:00~11:45	창711		
		글쓰기2	2	최정은	13:00~15:45	창711		
		글쓰기2	2	조현주	13:00~15:45	창204		
		영어1	2	Jonathan Davis	09:00~11:45	창303	Basic	
		영어1	2	Kenny Poirier	13:00~15:45	창303	Basic	
		영어1	2	Gregory Napp	09:00~11:45	창304	Intermediate	
		영어1	2	김현정	13:00~15:45	창304	Intermediate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양-배분이수교과(1영역)	영어2	2	Jordan Davidson	09:00~11:45	창403	Basic	
		영어2	2	Stephen Mangan	13:00~15:45	창403	Basic	
		영어2	2	Andrew Thompson	09:00~11:45	창404	Intermediate	
		영어2	2	Exan Desforges	13:00~15:45	창404	Intermediate	
		시민교육	3	오현순	13:00~15:45	창502	2015학번 수강불가	
		시민교육	3	우대식	13:00~15:45	창503	2015학번 수강불가	
		생명과그물망-인간·동물·환경_지구	3	정영숙	09:00~11:45	창305		
	교양-배분이수교과(2영역)	진화와인간본성	3	이진아	13:00~15:45	창305		
	교양-배분이수교과(3영역)	인간과자연지리	3	이준호	09:00~11:45	창301		온라인 수업
	교양-배분이수교과(4영역)	네트워크기술을통한현재와미래사회	3	정화영	-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양-배분이수교과(5영역)	축제와세계의문화	3	허영애	09:00~11:45	창201		
		강각의재국:시각중심주의를넘어서	3	한정민	13:00~15:45	창306		
		부의진화-게임과네트워크	3	정화영	-			온라인 수업
		시민사회와NGO	3	정복철	13:00~15:45	창201		
		법,질서,국가	3	이환경	13:00~15:45	창205		
		행복이란무엇인가?	3	신혜영	13:00~15:45	창712		
		세계의문화주의자들	3	송병목	09:00~11:45	창306		
		음악과관악·중독·음악치료의역사	3	조은아	09:00~11:45	창207		
		디지털시대의문화	3	정완	09:00~11:45	창205		
		미지의문명-유럽과공존의두터움세계	3	신현주	13:00~15:45	창308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양-배분이수교과(7영역)	논증과토론	3	이미진	-			온라인 수업
	교양-자유이수교과(가/타)	악과건강	3	정성현	-			온라인 수업
	교양-자유이수교과(제육)	부동산학개론	3	이성근	13:00~15:45	창207		
		골프	1	이상민	10:00~11:50	청운관(골프장)		
		배드민턴	1	강창균	10:00~11:50	내오관(농구장)		
		조깅과워킹	1	홍대석	-	청운관(헬스장)		주말집중(주말 및 공휴일 수업)
		건강과웰니스	3	강창균	13:00~15:50	창307		
		토텐컨디셔닝(체력및몸매관리)	1	이상민	13:00~14:50	청운관(헬스장)		
	교양-자유이수교과(제칠)	동계스포츠:스키	1	고인태	-	스키장		집중이수(주말 및 공휴일 수업)
		동계스포츠:스노우보드	1	고인태	-	스키장		집중이수(주말 및 공휴일 수업)
		영화속그림읽기	3	이현민	13:00~15:45	네B202		

* NOTE

- 온라인강의: 오전·오후 구분없이 원하는 시간에 수강 가능(시험관련은 강의계획서 참고 및 담당 교강사에게 문의)
- 글쓰기 및 영어 과목의 학점: 2011학번 이후~2학기 / 2010학번 이전~3학기
- 전공강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전공사무실에 문의 바랍니다.
 - 경영학 전공강좌: 경영대학 (02-961-0512)
 - 철학, 영어학 관련 전공: 문과대학 (02-961-0221)
 - 의상학, 주거환경, 아동가족, 식품영양학 관련 전공: 생활과학대학 (02-961-0551)
 - 수학, 물리, 지리 관련 전공: 이과대학 (02-961-0887)
 - 경제, 행정 관련 전공: 정경대학 (02-961-9184)
 - 미술 관련 전공: 미술대학 (02-961-0631)
 - 호텔경영 관련 전공: 호텔관광대학(02-961-0802)
- 학사 일정에 따라 시간표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